

시판 임부복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봄 · 여름 의복을 중심으로 -

최혜선* · 김소라 · 최진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A Study on Suitability of Maternity Dress on the Market

- Spring & Summer Clothes -

Hei-Sun Choi* · Sora Kim · Jin-Hee Choi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bout the suitability of maternity dresses on the market and thus to contribute for the maternity dress makers to produce clothes which are ergonomic and wanted by customers.

The chief designers of the two major maternity dress makers were questioned about design and production planning, and 195 subjects who had an experience of delivery within a year were questioned about their consumer behavior, preference, and body fitting.

The sugges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of maternity dress makers and customers were as follows:

1. The most important item, an one-piece dress should be produced a lot more than other items.
2. The designs of maternity dress should be more simple, sophisticated, and natural.
3. The colors of pastel tone rather than trendy colors should be used.
4. The materials of maternity dress should be washable and able to help pregnant women's activity.
5. The front patterns of maternity dress should have more ease than the back patterns have, to cope with increasing abdominal girth and bust girth.

Key Words : maternity dress(임부복), consumer behavior(소비자 행동), preference(선호도),
body fitting(인체 적합도)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학력화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결혼 후에도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패션에 대한 관심과 인지능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 일반 여성들의 의복은 다양화·세련화되고 있는 반면, 임부복은 홈웨어의 단계를 겨우 벗어난 정도로 그 디자인이 아직도 유아적이고 획일적인 상태이다(박유신, 1993). 또한 임부복의 패턴에 있어서도 임부의 신체적 변화를 잘 고려하지 못하여 신체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임부들이 의복으로 인한 불편함마저도 감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부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임부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김희재, 1989; 박유신, 1993; 오선아, 1996)와 인체계측을 통한 임부의 신체특성에 관한 연구(이선명, 1985; 나미향 등, 1993; 나미향 등, 1994), 인체계측을 통한 임부복 품목별 기본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곽혜진·임원자, 1988; 홍정민·김현순, 1993; 최광희·함옥상, 1994), 그리고 임부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이은영, 1994)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연구로는 임부의 체형특성과 기본패턴에 대한 연구(藤田光子, 1987; 森由紀·木岡悦子, 1994; 木岡悦子·森由紀, 1994), 임부복에 대한 구매행동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Belleau, B. D., 1989) 등의 분야가 있다. 이와 같이 임부복 생산업체의 실태조사와 소비자 조사를 연관시켜 임부복 생산업체의 문제점을 밝혀 개선점을 제안하는 연구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부복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및 생산 기획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임부복의 구입·선호도·착용 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임부복 생산업체의 문제점을 밝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임부복과, 특히 임부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신체부위에 대한 임부복 패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부복 생산업체 대상을 백화점 입점업체로 한정하였으므로 임부복 생산업체의 문제점을 확대·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부복 생산업체에게 임부복 디자인 및 생산 기획과 인체공학적인 패턴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며, 임부들에게는 기호와 신체변화에 적합한 임부복을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임부복 생산업체대상 설문조사와 소비자대상 설문조사로 구성되었다.

1. 임부복 생산업체 설문조사

1) 조사대상

1999년 5월 현재 국내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임부복 전문 브랜드가 2개뿐인 관계로 이들 브랜드 디자이너 실장과의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업체의 일반사항, 디자인 및 생산 기획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업체의 일반사항으로는 업체명, 설립연도, 브랜드명, 지역별 점포수, 유형별 점포수, 시즌별 생산량, 연간 총매출액 등이다. 디자인 및 생산 기획에 관한 문항으로는 외출복과 평상복의 생산비율, 외출복과 평상복의 품목별 생산비율, 생산 사이즈의 호칭과 신체치수, 일반의 복과의 패턴차이, 품목별 가격대, 품목별 사용 소재, 소재 선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점,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임신 개월수를 나누어 디자인하는지의 여부, 임신 개월수에 따른 임부복 사이즈 조절 방법, 출산후 수선여부, 소비자의 출산후 수선의뢰 비율, 출산후 수선부위와 방법, 소비자 불만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2. 소비자 설문조사

1) 조사대상

출산 후 1년 이내이면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 5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설문지 210부를 동년 7월에 배포하였다. 이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15부를 제외하고 19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지는 임부들의 임부복 구입현황과 선호도, 인체 적합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의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연령, 직업, 그리고 임신 전 몸무게와 임신 중 최대 몸무게의 차이 등의 사항이다.

둘째, 임부복 구입현황에 관한 문항으로, 임부복의 필요시기, 임부복의 평상복·외출복 구분여부, 외출복의 구매비율, 임부복 구입장소, 소유한 임부복 별수, 구입한 임부복 품목, 구입한 임부복의 품목별 가격대 등의 사항이다.

셋째, 임부복 선호도에 관한 문항으로, 임부복에 가장 필요한 품목, 임부복 구입시 가장 중시하는 사항, 선호 디자인, 소재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항, 임부복의 품목별 선호소재, 선호색상 등의 사항이다.

넷째, 임부복의 인체 적합도에 관한 문항으로, 상의·원피스 착용시 불편한 부위와 그 이유, 하의 착용시 불편한 부위와 그 이유 등의 사항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임부복에 필요한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에 관한 것으로 하여, 설문지를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χ^2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SASWIN 통계 Package를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임부복 생산업체 설문조사

1) 업체의 일반적인 사항

A사의 경우 백화점에 11개의 매장이 있고 이중 5개는 서울, 6개는 지방에 있으며, B사의 경우 백화

점에 38개의 매장이 있고 이중 15개는 서울, 23개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B사에서는 1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즌별 생산량을 보면 시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A사에서는 15,000~20,000피스, B사에서는 약 40,000피스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 B사가 A사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디자인 및 생산 기획

외출복과 평상복의 생산비율은 A사의 경우 외출복 대 평상복의 생산비율이 80:20, B사의 경우 55:45로 나타나 두 브랜드 간에 차이는 있으나 모두 외출복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백화점 입점 브랜드로 고가이기 때문에 평상복보다 외출복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외출복의 품목별 생산비율은 A사의 경우 자켓 20%, 정장바지 20%, 블라우스 20%, 조끼 20%, 원피스 15%, 남방 5%의 순으로 나타났고, B사의 경우 자켓 20%, 정장바지 15%, 조끼 15%, 점퍼 스커트 15%, 원피스, 블라우스, 남방 순으로 나타나 외출복에서 원피스의 생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두 브랜드 모두 자켓과 조끼의 생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복의 품목별 생산비율은 A사의 경우 원피스 30%, 레깅스 20%, 면바지나 청바지 20%, 조끼 10%, 티셔츠, 블라우스, 남방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B사의 경우 레깅스 30%, 티셔츠 13%, 점퍼 스커트 13%, 조끼, 원피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사는 원피스보다 점퍼 스커트 형태를 많이 생산하고 있었으며, 두 브랜드 모두 외출복과 평상복에서 스커트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하고 있는 사이즈의 호칭과 신체치수를 보면, 두 브랜드 모두 한가지 사이즈만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이즈에 대해서는 맞춤생산을 하고 있었다. 생산되는 사이즈 호칭은 두 브랜드 모두 상의와 원피스의 경우 90-95-160(가슴둘레-배둘레-신장), 하의의 경우 70-95(허리둘레-엉덩이둘레)로 66사이즈의 KS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여기서 허리둘레는 일반인의 앞면 허리둘레 위치에서 4inch 올라간 곳을 기준으로 하여 허리둘레가 수평이 아닌

앞쪽으로 갈수록 올라간 형태를 띄게 된다.

일반의복과 임부복의 패턴제작상 차이를 살펴보면, 임부복 패턴제작시에는 임부의 신체변화를 고려하여 일반의복의 신체치수에 여유분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 증가정도는 다음과 같다. 상의와 원피스의 경우 앞길이가 1inch, 유장 1~1½inch, 소매통 1inch, 어깨너비 ½~1inch, 상의 길이 6inch 등을 증가시키고 유폭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임부의 체형변화상 가슴둘레와 배둘레가 개월수의 경과에 따라 앞쪽에서 많이 증가되나, 임부복업체에서의 패턴제작시 배둘레에만 앞판에서 2inch 여유분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 가슴둘레에는 앞판에서 여유분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동은 깊이를 깊게 파지 않으면서 진동둘레의 곡선을 완만하게 하여 소매의 여유분을 더해 주고 있으며, 소매산 높이에 있어서는 낮을수록 활동에 편리하기는 하나 외출복인 경우에는 외관을 고려하여 많이 낮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격대를 보면, 전반적으로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보다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품목별 사용 소재를 보면, 두 브랜드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평상복에는 면을, 그리고 외출복에는 폴리에스터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A사의 경우 외출복 조끼와 원피스 품목에 레이온 혼방섬유를 사용하여 흡습성을 고려한 것을 볼 수 있다. 바지 소재로는 두 브랜드 모두 신축성 소재와의 혼방적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B사의 경우 블라우스와 남방에도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표 2> 참조). 이것은 임부의 활동성과 신체변화를 고려할 때 권장되어야 할 소재로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이용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소재의 색상 선택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에 관한 문항에서는 A사의 경우 유행경향에 따라 매 시즌 색상을 바꿔서 사용한다고 하였고, B사의 경우에는 매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색상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할 때 가장 중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A사의 경우 유행경향에 따르는 디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B사의 경우 활동하

<표 1> 품목별 가격대

단위: 천원

| 품 목 | 외 출 복 | | 평 상 복 | |
|------|-------|-----|-------|-----|
| | A사 | B사 | A사 | B사 |
| 자켓 | 160 | 189 | . | . |
| 블라우스 | 70 | 129 | 60 | 109 |
| 남방 | 100 | 119 | 80 | 99 |
| 티셔츠 | . | . | 50 | 69 |
| 조끼 | 150 | 179 | 130 | 149 |
| 원피스 | 190 | 219 | 150 | 189 |
| 바지 | 110 | 139 | 60 | 119 |

<표 2> 품목별 사용 소재

| 품 목 | 외 출 복 | | 평 상 복 | |
|------|------------|------------|----------|------------|
| | A사 | B사 | A사 | B사 |
| 자켓 | 폴리에스터 혼방 | 폴리에스터 혼방 | . | . |
| 블라우스 | 폴리에스터 100% | 신축성소재 혼방 | 면 100% | 면 100% |
| 남방 | 면 100% | 신축성소재 혼방 | 면 100% | 면 100% |
| 티셔츠 | . | . | 면 100% | 면 100% |
| 조끼 | 레이온 혼방 | 폴리에스터 100% | 마 혼방 | 폴리에스터 100% |
| 원피스 | 레이온 혼방 | 폴리에스터 혼방 | 면 혼방 | 폴리에스터 혼방 |
| 바지 | 신축성소재 혼방 | 신축성소재 혼방 | 신축성소재 혼방 | 신축성소재 혼방 |

기 편한 디자인이라고 응답하여 두 브랜드 간의 색상, 디자인 기획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임신 개월수에 따른 디자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보면, B사만이 임신 개월수를 나누어 디자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5-6개월/7-8개월/9-10개월의 3단계로 나뉘어졌다. 임신 개월수에 따른 임부복 사이즈 조절방법은 상의와 원피스의 경우, 허리선 옆에 벨트를 달거나 벨트를 착탈이 가능하도록 단추, 단춧구멍 처리를 하고, 또는 가슴 밑에서 끈을 앞뒤로 혹은 뒷판만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의 경우에는 허리선의 뒤쪽은 고무줄로 처리하고 앞부분은 스냅이나 단추를 오른쪽과 왼쪽 양쪽으로 3단계 또는 4단계 처리하여 조절하거나, 앞 뒤 모두를 하나의 고무줄로 하여 단춧구멍 처리를 통해 앞뒤를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후 수선 여부와 그 비율을 보면, 두 브랜드 모두 출산후에도 입을 수 있도록 수선이 가능하고, A사는 30-40%, B사는 40-50%의 수선비율을 나타내었다. 출산후 수선 부위와 방법을 보면, 상의와 원피스의 경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어깨선을 줄이고 특히 원피스의 경우 허리라인을 살리고 옷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의 경우에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바지통 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바지의 수선에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소요하고 있었다.

소비자 불만사항으로는 세탁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수축과 탈색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레이블에 드라이클리닝이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소비자들이 임부복을 소량 구입하여 자주 물세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임부복 소재는 물세

탁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출산후 수선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반의복과 같은 형태를 원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에서는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구입후 서비스와 소비자의 의복에 대한 지식의 확대로 상호절충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2. 소비자 설문조사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대부분 26-35세이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66.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문직 15.4%, 사무직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신 전과 후의 최대 몸무게 차이는 10-13kg이 34.5%로 가장 많고, 13-16kg이 23.7%, 7-10kg이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2) 임부복 구입현황

임부복 필요시기에 대하여 임신 5개월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2%로 가장 많고, 6개월 34.0%, 7개월 13.4%, 4개월 9.8%로 나타나 대부분이 임신 5개월~6개월에 임부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복을 평상복과 외출복으로 구분하여 구입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68.2%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복 구입장소에 대해서는 임부복 전문매장이 38.0%, 백화점 26.2%, 시장 25.3%로 나타났고, 물려입는 경우는 복수응답으

<표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변 인 | 구 분 | | | | | | N |
|--------------------------|------------------|----------|-----------------|----------|----------|---------|-----|
| | 20세 이하 | 21세 25세 | 26세 30세 | 31세 35세 | 36세 이상 | - | |
| 연 령 | 1(0.5) | 8(4.1) | 90(46.2) | 80(41.0) | 16(8.2) | - | 195 |
| | | | | | | | |
| 직 업 | 전업주부 | 사무직 | 전문직 | 서비스직 | 생산직 | 기타 | 195 |
| | 129(66.2) | 19(9.7) | 30(15.4) | 7(3.6) | 3(1.5) | 7(3.6) | |
| 임신 전 몸무게와 임신 중 최대 몸무게의 차 | 7kg 이하 | 7 10kg | 10 13kg | 13 16kg | 16 19kg | 19kg 이상 | 194 |
| | 11(5.7) | 30(15.5) | 67(34.5) | 46(23.7) | 25(12.9) | 15(7.7) | |

로 9.0%가 있었다. 임신기간 중의 임부복 소유 별수에 대해서는 4-6벌이 48.7%로 가장 많고, 1-3벌 32.3%, 7-9벌 16.4%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임신기간 중에 임부복을 많이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후 임부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 임부복에 대한 싫증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구입한 임부복 품목에 관한 문항에서는 원피스가 30.5%로 가장 높고, 레깅스 19.4%, 정장바지 11.2%, 남방 9.4%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스커트, 면바지나 청바지, 자켓 등은 많이 구입하지 않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구입한 임부복의 품목별 가격대를 보면, 자켓은 10-15만원대가 가장 많고, 블라우스나 남방은 3만원 이하와 3-5만원이 대부분이었으며, 티셔츠는 3만원 이하가 78.3%였다. 조끼는 3-5만원과 5-10만원이 각각 36.4%로 나타나 다른 품목에 비해 약간 비싼 편으로 나타났다. 외출복 원피스는 3-5만원이 32.2%, 5-10만원 31.5%, 10-15만원 20.1%로 나타나 자켓을 제외한 다른 품목에 비해 고가의 의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복 원피스는 3-5만원이 49.6%, 3만원 이하 30.7%, 5-10만원 13.4%로 나타나 외출복 원피스에 비해 저가임을 알 수 있다. 정장바지는 3-5만원이 44.1%, 5-10만원 30.5%, 10-15만원 11.9%로 나타나 자켓, 외출복 원피스 다음으로 소비자가 고가로 구입하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면바지나 청바지는 3만원 이하가 58.8%, 3-5만원이 29.4%로 나타났으며, 레깅스는 응답자의 83.8%가 3만원 이하라고 응답했다. 이상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품목의 가격대를 살펴보면, 백화점 입점업체의 품목별 가격대와 비교해 볼 때(<표 1> 참조), 모든 품목에서 낮은 가격대의 임부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3) 임부복 선호도

임신기간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으로 원피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72.5%, 레깅스 10.1%로 나타났는데, 임부복 생산업체 결과에서는 원피스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품목별 생산비율과 소비자 선호품목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입시 가장 중시하는 점으로는 활동성이 64.9%, 디자인이 16.2%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디자인은 활동하기 편한 디자인이 42.8%, 배가 덜 나와 보이게 하는 디자인이 28.9%, 출산 후에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 14.5%로 나타났다. 구입시 소재(옷감)에서 가장 중시하는 점은 세탁용이성이 39.0%, 촉감 23.2%, 흡습성 21.5%, 구김방지 12.4% 순으로 나타났는데, 촉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임부의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호하는 색상으로는 파스텔톤의 밝은 색상이 55.6%로 가장 많고, 축소되어 보이는 짙은 색상 19.0%, 눈에 띄지 않는 색상

<표 4> 시판 임부복 구입현황

단위: 명(%)

| 변 인 | 구 분 | | | | | | | N | | | |
|-----------------|-----------|----------|----------|----------|---------|-----------|---------|----------|-----------|---------|-------|
|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 | | | |
| 임부복 필요시기 | 19(9.8) | 76(39.2) | 66(34.0) | 26(13.4) | 7(3.6) | 0(0.0) | | 194 | | | |
| | 예 | | | 아니오 | | | | | | | |
| 평상복·외출복 구분 구입여부 | 133(68.2) | | | 62(31.8) | | | | 195 | | | |
| | 10% 이하 | 10-30% | 30-50% | 50-70% | 70% 이상 | - | | | | | |
| 외출복 구매비율 | 28(21.2) | 41(31.1) | 38(28.8) | 16(12.1) | 9(6.8) | - | | 132 | | | |
| | 58(26.2) | 84(38.0) | 56(25.3) | 20(9.0) | 1(0.5) | 2(0.9) | | | | | |
| 구입장소 | 백화점 | 임부복 전문매장 | 시장 | 물러입음 | 홈쇼핑 | 기타 | | 221 | | | |
| | 63(32.3) | 95(43.7) | 32(16.4) | 4(2.1) | 1(0.5) | - | | | | | |
| 임부복 소유 벌수 | 1-3벌 | 4-6벌 | 7-9벌 | 10-12벌 | 13벌 이상 | - | | 195 | | | |
| | 자켓 | 블라우스 | 남방 | 티셔츠 | 조끼 | 원피스 | 스커트 | | 정장바지 | 레깅스 | 면,청바지 |
| 구입한 임부복 품목 | 27(4.7) | 39(6.8) | 54(9.4) | 47(8.2) | 21(3.7) | 175(30.5) | 14(2.4) | 64(11.2) | 111(19.4) | 20(3.5) | 573 |

<표 5> 임부복 구매 가격대

단위: 명(%)

| 품목 | 가격 | 3만원 이하 | 3-5만원 | 5-10만원 | 10-15만원 | 15-20만원 | 25만원 이상 | N |
|----------|----|-----------------|-----------------|-----------------|----------------|----------|---------|-----|
| | | | | | | | | |
| 자켓 | | 3(12.5) | 4(16.7) | 4(16.7) | 8(33.3) | 3(12.5) | 2(8.3) | 24 |
| 블라우스·남방 | | 32(40.5) | 30(38.0) | 13(16.5) | 3(3.8) | 1(1.3) | 0(0.0) | 79 |
| 티셔츠 | | 36(78.3) | 10(21.7) | 0(0.0) | 0(0.0) | 0(0.0) | 0(0.0) | 46 |
| 조끼 | | 6(27.3) | 8(36.4) | 8(36.4) | - | - | - | 22 |
| 원피스(외출복) | | 10(6.7) | 48(32.2) | 47(31.5) | 30(20.1) | 10(6.7) | - | 145 |
| 원피스(평상복) | | 39(30.7) | 63(49.6) | 17(13.4) | 7(5.5) | 1(0.8) | - | 127 |
| 스커트 | | 2(16.7) | 4(33.3) | 5(41.7) | 1(8.3) | - | - | 12 |
| 정장바지 | | 5(8.5) | 26(44.1) | 18(30.5) | 7(11.9) | 2(3.4) | 1(1.7) | 59 |
| 면바지, 청바지 | | 10(58.8) | 5(29.4) | 2(11.8) | - | - | - | 17 |
| 레깅스(폴바지) | | 93(83.8) | 13(11.7) | 4(3.6) | 1(0.9) | - | - | 111 |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업체에서는 색상선정에 있어서 유행색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색상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임부복 품목 선호소재를 보면, 자켓은 울이 24.1%로 가장 높고, 면혼방 20.7%, 마혼방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블라우스 및 남방은 면혼방이 43.8%, 면100%가 31.4%,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이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티셔츠는 면

100%가 87.1%로 나타났으며, 조끼는 면혼방,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출복 원피스는 면혼방이 31.0%,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 20.3%, 면 100%가 19.5%, 울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상복 원피스는 면 100%가 48.7%, 면혼방이 27.0%로 나타나 면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는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이 29.0%, 면혼방이 19.4%, 마혼방이 19.4%, 울이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임부복 일반적 선호도

단위: 명(%)

| 변인 | 구분 | | | | | | | | | | | N | |
|-----------------|------------------|-----------------|-----------------|------------------|------------------|------------------|----------------|--------------|----------|-----------------|--------|--------|-----|
| | 자켓 | 블라우스 | 남방 | 티셔츠 | 조끼 | 원피스 | 스커트 | 정장바지 | 레깅스 | 면,청바지 | 기타 | | |
| 필요 품목 | 0(0.0) | 2(1.3) | 6(4.0) | 3(2.0) | 3(2.0) | 108(72.5) | 1(0.7) | 6(4.0) | 15(10.1) | 3(2.0) | 2(1.3) | 149 | |
| 구입시 가장 중시하는 점 | 활동성 | 디자인 | 맞음새 | 소재 | 색상 | 가격 | 세탁성 | 구입후 수선여부 | 사이즈 | 기타 | - | 154 | |
| | 100(64.9) | 25(16.2) | 11(7.1) | 7(4.5) | 0(0.0) | 4(2.6) | 1(0.6) | 1(0.6) | 4(2.6) | 1(0.6) | - | | |
| 선호하는 디자인 | 유행경향을 따르는 디자인 | | 배가 덜 나와 보이는 디자인 |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디자인 | | 활동하기 편한 디자인 | | 입고 벗기 편한 디자인 | | 출산후도 착용 가능한 디자인 | | 기타 | 159 |
| | 6(3.8) | | 46(28.9) | 8(5.0) | | 68(42.8) | | 6(3.8) | | 23(14.5) | | 2(1.3) | |
| 구입시 소재에서 중시하는 점 | 세탁용이성 | | 구김방지 | | 성진지방지 | | 촉감 | | 흡습성 | | 기타 | | 177 |
| | 69(39.0) | | 22(12.4) | | 5(2.8) | | 41(23.2) | | 38(21.5) | | 2(1.1) | | |
| 선호하는 색상 | 유행하는 색상 | | 눈에 띄지 않는 색상 | | 밝은 색상(파스텔톤) | | 축소되어 보이는 짙은 색상 | | 기타 | | - | | 189 |
| | 1(1.2) | | 35(18.5) | | 105(55.6) | | 36(19.0) | | 1(0.5) | | - | | |

<표 7> 임부복의 품목별 선호소재

| 품목 | 소재 | | | | | | | | | N |
|----------|------------------|-----------------|-----------------|----------|------------|-----------------|-----------------|--------|--|-----|
| | 면 100% | 면혼방 | 쿨올 | 마혼방 | 폴리에스터 100% |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 | 신축성소재 혼방 | 기타 | | |
| 자켓 | 11(9.5) | 24(20.7) | 28(24.1) | 23(19.8) | 7(6.0) | 14(12.1) | 8(6.9) | 1(0.9) | | 116 |
| 블라우스·남방 | 43(31.4) | 60(43.8) | 5(3.6) | 7(5.1) | 5(3.6) | 15(10.9) | 2(1.5) | 0(0.0) | | 137 |
| 티셔츠 | 122(87.1) | 12(8.6) | 1(0.7) | 0(0.0) | 0(0.0) | 1(0.7) | 4(2.9) | 0(0.0) | | 140 |
| 조끼 | 13(12.5) | 29(27.9) | 13(12.5) | 12(11.5) | 10(9.6) | 22(21.2) | 5(4.8) | 0(0.0) | | 104 |
| 원피스(외출복) | 31(19.5) | 49(31.0) | 18(11.4) | 10(6.3) | 8(5.1) | 32(20.3) | 10(6.3) | 0(0.0) | | 158 |
| 원피스(평상복) | 74(48.7) | 41(27.0) | 3(2.0) | 2(1.3) | 13(8.6) | 10(6.6) | 8(5.3) | 1(0.7) | | 152 |
| 스커트 | 8(8.6) | 18(19.4) | 12(12.9) | 2(2.2) | 7(7.5) | 27(29.0) | 18(19.4) | 1(1.1) | | 93 |
| 정장바지 | 5(4.3) | 13(11.1) | 21(17.9) | 17(14.5) | 15(12.8) | 32(27.4) | 13(11.1) | 1(0.9) | | 117 |
| 면,청바지 | 63(60.0) | 27(25.7) | 1(0.0) | 1(1.0) | 1(1.0) | 1(1.0) | 12(11.4) | 0(0.0) | | 105 |
| 레깅스(플바지) | 79(51.6) | 10(6.5) | 0(0.0) | 0(0.0) | 1(0.7) | 3(2.0) | 60(39.2) | 0(0.0) | | 153 |

4) 임부복의 인체적합도

상의와 원피스 착용시 불편한 신체부위로는 가슴 부위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팔부위 19.5%, 배부위 19.0%, 어깨부위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엉덩이부위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로 매우 낮았으며, 불편한 부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2.3%나 되었다. 각 부위별 불편 이유를 살펴보면, 가슴부위의 경우 들레치수 부족으로 인한 압박감과 답답함, 호흡곤란의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임부의 신체변화 특징상 가슴 부위가 커지는데 생산업체에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앞판의 여유분을 일반의복과 같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팔부위 또한 상완들레치수 부족으로 인한 활동불편이 가장 많았고, 배부위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들레치수 부족으로 인한 압박감과 피부 가려움증, 발적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앞치짐 분량의 부족으로 인한 앞들림 현상의 이유도 나타났다. 그리고 어깨부위는 임신부의 어깨너비 증가로 인한 어깨너비치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하의 착용시 불편한 신체부위로는 배부위가 58.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허벅지부위 17.4%, 엉덩이부위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부위별 불편 이유를 살펴보면, 배부위의 경우 들레치수 부족이 가장 많고, 허리벨트나 고무줄로 인한 배부위 피부의 눌림, 조임, 피부 가려움 등의 이유, 그리고 앞밀위 길이가 짧아 하의가 배를 덮지 못하는 이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벅지부위의 경우 들레치수 부족이 가장 많았고, 엉덩이부위의 경우 배가 나옴에 따라 옆선이 앞으로 치우쳐 엉덩이부위가 당겨지는 이유, 밀위길이의 부족, 엉덩이부위 원단이 처지는 이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부복의 인체적합 정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8>과 같다.

임부복에 필요한 개선사항이나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사항이 가장 많았는데, 기존의 디자인이 유아적이고 유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단순하고 세련되면서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원하

<표 8> 임부복의 인체적합 정도

단위: 명(%)

| 변 인 | 구 분 | | | | | | | N |
|--------------------------|-----------|----------|----------|----------|----------|--------|--------|-----|
| | 가슴부위 | 팔부위 | 배부위 | 어깨부위 | 없음 | 엉덩이부위 | 기타 | |
| 상의·원피스 착용시 신체부위 중 불편한 부위 | 55(28.2) | 38(19.5) | 37(19.0) | 36(18.5) | 24(12.3) | 3(1.5) | 2(1.0) | 195 |
| 하의 착용시 신체부위 중 불편한 부위 | 배부위 | 허벅지부위 | 엉덩이부위 | 없음 | 기타 | | | 195 |
| | 114(58.5) | 34(17.4) | 25(12.8) | 19(9.7) | 3(1.5) | | | |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활동성이 우수한 임부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서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 특히 바지는 걸감뿐만 아니라 안감에도 신축성 소재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임부복이 임신기간 이후에 계속 활용하기가 힘든 것에 비해 고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가의 임부복을 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출산후에도 입을 수 있게 임부복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직장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입기에 적합한 임부복을 구입하기 어려운 점, 뒤여름 의복의 착용 불편, 민소매 임부복을 입기 꺼려하는 점, 원피스의 경우 길이가 너무 길고 들레치수 또한 만사시가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의복의 큰 볼륨으로 인해 입기 불편한 점, 다양한 사이즈의 부재 등을 호소했으며, 치수조절 단계의 다양화, 수유복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디자인, 판매매장의 증가, 대여점의 필요성 등도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5) 독립변인과 배경변인과의 관계

직업의 유무와 임부복을 평상복과 외출복으로 나누어 입는가, 외출복 구매비율, 소유한 임부복 벌수, 구입한 임부복 품목 등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고, 임신 전과 임신 중의 최대 몸무게 차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몸무게 차이를 13kg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몸무게 증가량과 필요품목, 상의·원피스 착용시 불편한 신체부위, 하의 착용시 불편한 신체부위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중 직업의 유무와 외출복 구매비율 항목에서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이 있는 임부가 전업주부보다 월등히 외출복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표 9>와 같다. 그리고 몸무게 증가량 차이에 따른 신체의 불편부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임부의 경우에는 몸무게 증가량에 상관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1> 참조).

<표 9> 직업과 외출복 구매비율과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 항목 | 10% 이하 | 10-30% | 30-50% | 50-70% | 70% 이상 | Total | χ^2 |
|---------|-----------|------------------|------------------|-----------|----------|-----------|----------|
| 전업주부 | 24(27.91) | 29(33.72) | 24(27.91) | 6(6.98) | 3(3.49) | 86(100.0) | 15.245* |
| 직장인 | 4(8.70) | 12(26.09) | 14(30.43) | 10(21.74) | 6(13.04) | 46(100.0) |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

<표 10> 몸무게 증가량과 상의·원피스 착용시 신체 불편 부위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 항목 | 배부위 | 가슴부위 | 팔부위 | 어깨부위 | 엉덩이부위 | 없음 | 기타 | χ^2 |
|---------|-----------|-----------|-----------|-----------|---------|----------|---------|----------|
| 13kg 이하 | 22(11.34) | 26(13.40) | 22(11.34) | 20(10.31) | 1(0.52) | 15(7.73) | 2(1.03) | 0.589 |
| 13kg 이상 | 15(7.73) | 29(14.95) | 15(7.73) | 16(8.25) | 2(1.03) | 9(4.64) | 0(0.00) | |

<표 11> 몸무게 증가량과 하의 착용시 신체 불편 부위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 항목 | 배부위 | 엉덩이부위 | 허벅지부위 | 없음 | 기타 | χ^2 |
|---------|-----------|----------|----------|----------|---------|----------|
| 13kg 이하 | 59(30.41) | 18(9.28) | 17(8.76) | 12(6.19) | 2(1.03) | 0.371 |
| 13kg 이상 | 54(27.84) | 7(3.61) | 17(8.76) | 7(3.61) | 1(0.52) | |

IV. 결론 및 제언

임부복에 대한 임부복 생산업체(백화점 입점업체) 설문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얻은 결론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임부들은 원피스를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여기는데 반해, 업체(백화점 입점업체)에서는 원피스의 생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면바지나 청바지, 자켓, 조끼 등의 생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부복 생산업체에서는 임부들의 요구에 따라 품목간 생산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임부들은 임부복 구입시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으로 활동성을 들었는데, 일부 품목에서 신축성 소재를 활용하여 활동성을 증진시키고 있기는 하나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임부의 체형변화 특성을 고려한 인간공학적인 패턴의 개발이 필요하다.

임부들은 활동하기 편한 디자인, 배가 덜 나와 보이는 디자인, 출산 후에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유행보다는 단순하고 세련되면서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원하므로 임부복 생산업체에서는 유행에 치중하여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임부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임부들은 밝은 색상을 가장 선호한 반면, 임부복 생산업체(백화점 입점업체)에서는 유행색상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색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에 있어서는 임부복의 특성상 세탁용이성, 촉감, 흡습성 등이 우수한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생산업체에서는 색상과 소재 선정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부복의 신체적합도에 대해서는, 상의와 원피스의 경우 가슴부위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부의 체형특성상 가슴이 커지고 배가 전방으로 돌출되므로 앞판의 여유분을 증가시켜 개월수 증가에 따른 사이즈 조절이 앞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하의의 경우에는 배부위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 역시 앞판의 여유분을 증가시켜 의복이 앞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임부복 패턴의 미적, 인체공학적 제작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현재 임부복 생산업체(백화점 입점업체)에서는 임부복을 한가지 사이즈로 생산하고 있으나, 인체의 기본 체형이 다르므로 사이즈의 세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임부의 체형과악과 기존의 판매율과 맞춤, 수선 등의 자료를 참조로 하여 사이즈 세분화의 비율을 예측해야 한다. 또한 임신 개월수에 따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임부들이 만약 원피스를 선호하는 점, 이전에는 바지와 상의를 즐겨 입는 점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개월수별 조절생산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임부복 생산업체(백화점 입점업체)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임부복의 생산실태와 착용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부복 생산업체를 백화점 입점업체로 한정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임부복에 대한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인 임부의 신체변화에 적합한 임부복 개발의 부재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착용실험을 거쳐 과학적 입증을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혜진· 임원자, 임신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기본스커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12, No.2, 1988.
- 김희재, 외출용 임부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춘추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나미향 등, 임부체형의 횡단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17, No.2, 1993.
- 나미향 등, 의복구성을 위한 임부체형의 종단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18, No. 5, 1994.
- 박유신, 임부복의 착시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오선아, 임부복의 의복범주 및 장식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대전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선명, 임부복 설계를 위한 연구 -인신 경과에 따른 체형변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은영, 임부복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직업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최광희·함옥상, 임신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의 기본원형 연구,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제20집, 1994.
홍정민·김현순, 임신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기본슬랙스 원형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Vol.12, No. 1, 1993.
藤田光子, 妊産婦における生體計測データの因子分析, 日本家政學會誌, Vol.38, No.12, 1987.
森由紀·木岡悦子, 妊娠後期の衣服設計に關す基礎的的研究(第2報) -マタニティドレスの適合性に關する實驗的研究-, 日本家政學會誌, Vol.45, No.2, 1994.
·木岡悦子·森由紀, 妊娠後期の衣服設計に關す基礎的研究(第2報)-妊娠後期體型の特徴について-, 日本家政學會誌, Vol.45, No.2, 1994
·Belleau, B. D., "Maternity Career Apparel and Perceived Job Effectiven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6, No.2, 1989.